***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5. 3. 10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LS에코에너지의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LS-VINA 전경 및 내부 시설 모습** |
| **문의** | **주호찬 차장 (010-8553-7904 ,** [**hjoo3@lscns.com**](mailto:hjoo3@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에코에너지, 필리핀 최대 IDC에 전력 케이블 공급…**  **IDC 전력망 시장 첫 진출**  **■ 베트남 LS-VINA 앞세워 동남아 IDC 시장 본격 공략**  **■ AI·클라우드 확산으로 연평균 10% 성장, 케이블 수요 급증**  **■ 동남아 IDC·미국 태양광 등 글로벌 전력망 시장 공략 가속화**  LS에코에너지(대표 이상호)가 동남아 데이터센터(IDC) 전력망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LS에코에너지는 최근 베트남 생산법인 LS-VINA가 필리핀 최대 규모의 IDC ‘STT 페어뷰(Fairview) 캠퍼스’에 MV(중전압) 및 LV(저전압) 전력 케이블을 공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을 계기로 동남아 IDC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STT 페어뷰 캠퍼스는 글로벌 IDC 전문기업 STT GDC가 필리핀 마닐라 인근 케손시티에 건설 중인 시설이다. 완공 시 총 124MW 규모의 IT 용량을 갖추어, AI 및 클라우드 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최근 동남아는 AI·클라우드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IDC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회사측은 동남아 IDC 시장이 2023년 약 88억 달러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 IDC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며, “LS-VINA의 생산 경쟁력을 기반으로 동남아 IDC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TT GDC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산하 ST 텔레미디어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글로벌 IDC 운영 기업으로, 싱가포르, 중국, 인도, 영국 등 전 세계 110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최근 알루미늄 전력케이블의 미국 수출을 시작하며 해외 시장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이다. 또한, 해저케이블 및 희토류 사업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 |